

박수민, 송수아의 기도편지

영혼구원 | 제자양육 | 세계선교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식을 전합니다.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4회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가 지난 2월21일-24일까지 한국 강화도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기독교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 예배, 기도, 교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대회기간 내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젊은이들과 일본인 참여가 늘면서 대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열심이 가득한 이야기, 대회 이후로까지 이어지는 친구 관계 같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한국위원회의 노력으로 이번 대회는 더욱 성공적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1년 이 대회를 시작 할때부터 함께 해주었던, 가장 어린나이(당시 4살) 참석자였던 둘째 딸 희원이가 성인 참석자가 되어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희원은 여러 모양으로 대회를 섬기면서 신나게 참석했습니다. 이 아이처럼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는 지난 14년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라왔습니다. 대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중일, 이 세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분들의 관계가 깊어졌으며 만남에 부여지는 은혜가 더 풍성해 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는 2025년 2월19일-21일까지 오키나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새로운 물결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로, 일본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이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통한 일본선교, 더 나아가 세계선교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선교를 위해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전세계 화교선교사들(중국대륙 포함)이 계속 증가해서 이미 2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일본선교를 위해서 도움을 줄 교회나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 해외선교지로 파송 받기 위해 준비하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적절한 훈련과 안내를 받을 단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난 2월에 BOD(Bridge Of Diaspora)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BOD 선교회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일본선교와 해외선교를 위한 다리(Bridge)가 되는 선교회입니다. 화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200명의 선교사 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평신도들 훈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그룹 개척, 인도, 교회개척, 세계선교를 위한 2년간의 집중과정으로 동아시아신학교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가운데 800명의 교회 개척자 양성과 400개의 교회 개척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파송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대회

2023년에는 일본 전역을 순회하는 전도대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전도대회도 14년차가 되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좋은 메신저와 간증자를 중심으로 한 전도대회에서, 음악 등을 매개로 하는 형식의 변화, 그리고 중국인 대상에서 일본인을 포함하는 대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5월에 있었던 전도대회는 미국계 화교 피아니스트 Sandra의 스토리가 있는 콘서트 형식이었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후코오카에서부터 도쿄까지 총 6개 도시에서 7번의 콘서트를 진행했고, 어린 학생들, 특히 일본인들이 대거 참석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음악과 이야기에 집중하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참석자의 80% 이상이 일본인이었습니다. 대회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 10월에는 일본 생명의 말씀사와 협력해 좀 더 큰 콘서트 홀(나카노 제로)에서, 더 많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 대상이 중국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일본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어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통해서 일본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 가정의 변화, 젊은 이들의 헌신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앙과 생활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기도 하고, 부모들의 일의 시간과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부모, 그들을 에워싼 환경이 학교를 통해서, 조금씩이지만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새로운 신입생 4명이 입학해 재학생이 총 21명이 됩니다. 내년에는 첫 졸업생도 나옵니다. 저희는 학교가 화교사회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쟁 일변도의 교육체계에 대한 건전한 대안, 성공 위주 교육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계, 생활에 뿌리 내린 신앙, 창의성과 자발성을 기초로한 튼튼한 실력, 세계를 섬기는 동북아시아 리더십 양성...등, 학교가 화교사회에 공헌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교회사역과 이양의 시작

저희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의 네 곳의 예배당을 통해서 2023년 한 해간 21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닛포리 예배당의 경우만 살펴봐도 2023년 한 해간 170여명(그중 70여명은 여행자)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중 70여명이 정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져서 30여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닛포리 교회 4개의 예배당에서 매주 200-25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열심을 품고 섬기는 리더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네 곳의 예배당 가운데 세 곳이 자체 예배당을 확보했습니다. 13명의 풀 타임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7명의 신학생이 신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는 개척 14년이 되었고, 이제는 선교사의 손이 거의 필요 없는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부는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의 담임목사 사역을 마감하고 현지인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에 교회 운영위원회에 사임의사를 밝혔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후임목사 청빙위원

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빙과정과 적응과정을 거쳐서 2025년 1월 교회 설립 15주년에 맞추어서 공식적인 이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14년간 교회에 없던 곳에 교회가 탄생하는데 부족한 저희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쓰임받은 자체로 영광이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 사역이 마무리된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목회 방면으로의 봉사보다는, 선교사로서 더욱 선교적이고 개척적인 분야에서 저희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

큰 딸 희주는 대학생살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안정감 있게 그러면서도 기쁘게 대학생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희주에게나 가족 모두에게 이 일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둘째 희원이는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내서 고등학교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의 양이 많고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잘 감당하고 내년에 무사히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수민 선교사는 교회 목회와 기타 사역에 분주한데,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수아 선교사는 도쿄 다니엘국제학교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힘과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양성하고 세계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순전한 이양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BOD(Bridge Of Diaspora) 선교회가 일본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한 다리 역할을 화교사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4월부터 시작되는 2년간의 평신도 훈련과정이 잘 자리잡고, 사역자 양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4.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도록